

업그레이드 me

패밀리 캠핑, 가족 삶의 질 높이기

광주·전남 가볼만한 캠핑장



엄마 아빠 낭만 되새기고  
아이들은 추억 쌓고

자연 벗삼아 별보며 하룻밤...텐트치고 요리하고 가족간 정 모락모락

완연한 봄날씨, '수퍼맨' 아빠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주일간 밖에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은 뒤 모처럼 맞는 주말, 아이들은 아침부터 밖에 나가자고 보낸다. 까짓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주마' 결심을 했다. 막상 나가자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줘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바쁜 회사를 핑계로 '까먹은' 평일 시간을 주말, '노력봉사'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광주 인근에 마련된 캠핑장을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약할 필요도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과 벗삼아 즐기다보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새소리·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해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지는 게 캠핑의 장점이다. 그만큼 가족간의 정을 돈독하게 해주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이들과 부인에게 아빠, 남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담'이다.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재미, 자연에서

노는 아이들=캠핑의 가장 큰 매력은 여행 준비에서부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모두 매달려 집(텐트)을 짓고, 함께 요리를 해야 잠자리도 마련되고 먹을거리도 해결된다. 아빠는 텐트를 친 뒤 집에서 마련해온 바비큐거리를 그릴에 올려놓은 뒤 고기를 굽고 엄마는 야채를 다듬고 아이들도 필요한 식수를 받아오는 등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찾아진다. 여름이 깔린 뒤 모닥불 피워놓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족들간 정을 돈독하게 하는 캠핑의 하이라이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쉬는 날이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의 캠핑장을 찾아 나선다는 김태민(35)씨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익숙해지면 가족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 기회를 줄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말했다. <장난감 없어서, 불편해서 싫어요? =캠

핑을 나설 생각이라면 아빠가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인과 아이들을 배려해야 캠핑이 즐겁다는 의미다. 우선, 부인이 대학생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캠핑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텐트·코펠·가스버너 삼총사 외에 바비큐그릴·테이블·의자·해먹·매트리스 등을 추가로 갖추는 게 좋다. 그래도 "콘도나 펜션 가지 왜 사서 고생이냐?"며 소아불이는 부인을 '유혹'하려면 '여왕'으로 추켜세워줘야 한다. 예를 들면 서툰 솜씨라도 묵묵히 텐트를 치고 바비큐 그릴에 고기를 굽고 내친 김에 저녁 요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침 일찍 원두커피를 끓여주는 것은 센스다. 아이들도 비슷하다. TV, 게임기도 없는 탓에 자칫 심심해하거나 지루하다고 짜증낼 법하다. 이럴 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지천에 핀 꽃과 나무를 가로질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벌레들을 관찰하는 등 스스로 놀이감을 찾

아 나선다. 캐치볼이나 비석치기 등 놀거리도 널렸다. 텐트 옆 해먹이라도 설치해놓고 그네 삼아 타고 노는 쏠쏠한 재미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 '거긴 가면 안돼, 그것은 만지지 마'라는 잔소리로 접어들자. <어디로 갈까 =전남 지역에서 야영이 가능한 캠핑장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중에서 전남도는 캠핑시설이 갖춰지고 초보 캠퍼에게 편리한 국민여가캠핑장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곳의 국민여가캠핑장 중 곡성·해남·장흥 등은 조성돼 인기를 끌고 있고 나머지 3곳은 조성중이다. 이외 장성군이 조성한 홍길동테마파크 야영장, 해남 땅끝오토캠핑장, 곡성 청소년야영장 등도 광주에서 멀지 않은데다, 야외 바비큐가 가능하고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야영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텐트 주변에 차를 세울 수 있거나 모닥불을 피워놓을 수도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주변 볼거리 풍성  
텐트 귀찮다면 캠핑카·기차펜션 이용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야영장=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가 모두 16개 마련돼 있다. 길이 7m·폭 4.5m인 데크는 10개, 사이즈가 작은 길이 7m·폭 2.9m짜리는 6개로, 데크마다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3~4인용 텐트는 모두 35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



1만원에 3~4인용 텐트를 빌려줘 따로 텐트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 취사장·샤워장·공연장·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화톳대 사용도 가능하다. 야영장 바로 옆에 홍길동 테마파크의 풋살경기장, 아케이드게임장, 산책 등 볼거리도 많다. 요즘에는 매주 80~120명씩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인해 1주일 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힘들 정도다. 야영장 이용료 5000원에 데크 사용료로 초등학교 이상 1인당 2000원씩 내야 한다. 데크 사이즈가 작아 독립성이 떨어져고 그늘이 많지 않다는 점이 흠이라면 흠. <해남 땅끝 오토캠핑장=오토 캠핑장과 캐러밴 캠핑장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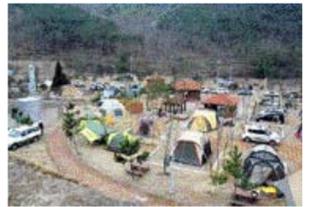
캠핑장 앞으로 탁 트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주변이나 길목에 해수욕장 등 가볼만한 곳도 많다. <곡성 국민여가캠핑장 및 청소년 야영장=곡성군 심전강 기차마을에 통일호 폐 객차를 개조한 기차펜션(7실)과 목조펜션(9동)을 마련해놓고 있다. 펜션과 같은 개념의 숙박시설로, 캠핑에 필요한 도구들이 실내에 잘 갖춰져 있어 음식 재료 외에는 따로 준비해갈 것이 거의 없다. 기차펜션은 17.2평형(1실)과 8.6평형(6실) 등으로 3.3㎡당 1만원꼴이다. 목조펜션은 15·12·11평형 등 9개다.



청소년야영장의 경우 6인용 텐트 50개를 설치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관리 운영상 텐트 5동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한 게 단점이다. 1박 기준으로 1동당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장흥 정남진리조트 오토캠핑장=장흥군 부산면 삼천공원내 오토캠핑장은 20여 원을 투입한 전남도 국민여가캠핑장 중 한 곳으로, 캠핑카(17대)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4월 준공한 뒤 7월부터 개장할 예정이어서 깨끗하고 주변에 장흥랜드·보림사·토요시장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테이블이나 모닥불을 피울 공간이 없다는 게 흠이다. <고흥 팔영산 오토캠핑장=고흥군이 조성한 캠핑장으로 팔영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데크는 없고 텐트 30동 정도 설치할 수 있다. 텐트 옆에 차량을 바로 주차



오토캠핑장은 40여개 텐트를 설치할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성수기(7~8월) 주말 이용료는 2만원, 비수기는 1만5000원이다. 바로 옆에는 캐러밴 캠핑장이 조성돼 있다. 캐러밴은 캠핑장에 고정돼 있는 캠핑카로 모두 10대다. 침실(침대·이불·베개)과 주방(취사도구·식기류), 화장실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전기밥솥도 설치돼 있어 음식을 해결할 수 있다. 비수기 5만원, 성수기 1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캠핑장에 별도로 샤워장·탈의실·취사장·화장실·음수대·세탁기 등을 갖췄다.



할 수 있어 집을 운반하는데 편하고 모닥불도 피울 수 있다. 테이블이 없어 식사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Advertisement for '칠만표 방수제' (Chilmanpyo Waterproofing). It features a woman in a white dress and various images of waterproofing products. Text includes 'SINCE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and '특별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Specialty from construction to completion, we take responsibility). It also mentions '누구나 할 수 있는 100% 방수성!!' (100% waterproofing that anyone can do!!) and '방수공수제는 거꾸로 써야 합니다.' (Waterproofing is done upside down!).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ya). It features a woman in a white dress and various images of the restaurant's interior and food. Text includes '고급 레스토랑,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침베)' (High-end restaurant, healthy taste, dignified service (500 seats)). It lists menu items like '삼겹살, 갈비, 닭, 오리, 돼지고기' (Pork belly, ribs, chicken, duck, pork) and '소고기(소), 계란, 김치, 떡볶이, 떡갈비, 떡볶이' (Beef, egg, kimchi, tteokbokki, tteokgalbi, tteokbokki). It also mentions '062)671-1199' and '명스퀘어 타워빌 2층 COV 빌'.